

고교 남88·여62% “음란비디오 봤다”

교육개발원 초중고생 성 조사결과 ‘충격’

남자 중·고생 40% 버스·지하철서 이성 몸만져

한승동 기자

고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10명 중 9명이, 여학생은 10명 중 6명 이상이 음란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 중·고생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성의 몸을 만져보는 등 가벼운 성추행을 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7일 발표한 ‘초·중·고교 성교육 읽기자료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결과 밝혀졌다. 교육개발원은 이에 따라 자체개발한 각 학교급별 교사용 성교육 지침서를 통해 지금의 학교 성교육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교육이 좀더 전문화되는 등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지난해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17일간 전국 각급학교 학생 2천3백여명을 대상으로 서면질의를 통해 실시된 교육개발원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고교 남학생의 87.8%가 음란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으며 여학생은 그 비율이 6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경험자의 시청 후 느낌을 물은 결과 남학생의 48.4%, 여학생의 17.9%가 본대로 행동하고 싶었다고 대답

했으며 기분이 좋았다고 답한 경우도 남학생은 45.3%, 여학생은 8.9%였다. 게다가 놀랍게도 남학생의 7.0%는 본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고 응답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중학생들이 성충동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 관한 조사에서 조사대상 남학생들의 44.9%, 여학생의 36.6%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야한 장면을 보았을 때 가장 큰 충동을 느낀다고 답했다. 즉 나체사진이나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모습을 보았을 때, 버스나 전철에서 여성과 몸이 닿았을 때 등의 질의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이 10.8~29.7% 또는 그보다 훨씬 낮은 것과 크게 대조된다. 심지어 조사대상 국민학교 5학년 남학생의 83.3%가 “텔레비전에서 야한 장면을 볼 때 기분이나 몸이 보통 때와 달라진다”고 답했고 그중에서 42.0%는 발기현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개발원은 “무분별한 향락, 과소비 행태가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은 범람하는 대중매체, 비디오테이프, 영화, 카페, 디스코테크클럽 등지에서 보거나 얻은 엉터리 성지식과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성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배우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성문제나 성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몸을 만져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고교생은 조사대상 남학생의 43.5%, 여학생의 2.1%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중학생은 남학생의 37.8%, 여학생의 3.5%가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중학생은 90년 다른 연구조사 때 남학생의 9.6%, 여학생의 2.4%가 이런 유형의 가벼운 성추행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가벼운 성추행을 한 학생들 중 고교생은 38.1%가 의식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답했고 중학교 남학생은 그 비율이 34.1%였다. 이런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고교생은 남학생이 51.1%, 여학생은 90.9%였으며 중학생은 남학생이 53.2%, 여학생은 86.8%였다. 이와 관련해 개발원은 성추행에 대해 엄격히 반대입장을 보이는 학생은 실제 추행경험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벼운 추행이나 별 문제될 게 없다고 답한 학생의 절반 가량이 추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밝히고 이 부분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